

屬格 [-ne] 의 研究

— 濟州島方言의 [-ne]를 中心으로 —

姜 根 保

I

1.1 現代國語에서 屬格의 表示는 {-의}가 全擔하고 있다. 그런데 濟州島方言에서는 {-의 (-üi)}와 더불어 {-네(-ne)}가 分擔하고 있으며 {-들}과도 並用하고 있다. 그러나 {-ne}는 屬格의 {-üi}나 複數接尾辭의 {-들(-tül)}과는 形態의 相異함은 勿論이고 統辭論의 構成에서 懸隔한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ne}가 屬格과 複數接尾辭의 二機能으로 言述되는 共時態의 記述을 通하여 共通語에서 使用하는 {-üi}, {-tül}과의 示差를 밝혀내고, 이를 基底로 하여 {-ne}가 二重의 機能을 負擔하는 史的인 要因과 起源的인 形成 및 發達까지를 推定하려는 데에 主眼을 두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方法으로는 置換吟味法과 擴大의 原理를 共時態의 記述에 援用하고, 通時態의 考察은 比較法을 主軸으로 展開하려고 한다.

1.2 濟州島方言(以下本島方言)에서 屬格의 機能으로 {-üi}와 함께 {-이(-i)}, {-ㅅ(s)}이 使用된다. 그런데 {-üi}는 母音 相互間의 關係가 等質的이 아니어서 不安定하나마 그런대로 {-i}와 共存하고 있으며, 그 分布의 勢力은 語音에 比較的 安定性을 가진 {-i}屬格形에 傾리는 傾向이 濃厚한 것이다. 그리고 {-s}은 複合語의 形成을 爲始하여 {-üi}, {-i}와 더불어 屬格의 機能을 表示하는데, 後行語의 初頭音을 硬音(단뱃피→담배씨, 洞內ㅅ사람→洞內싸람,)으로 바뀌는 現象은 普遍的인 것이다.

이러한 {-üi} {-s} 등의 一般的인 屬格의 表示와는 달리 共通語나 他方言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없는 {-ne}가 {-üi}와 同一한 統辭的 機能으로써 言述되는 事實이다. 다음에 例를 들어 {-üi}와의 差異가 무엇인가를 살피기로 하겠다.

- 例 ㄱ) 야네 집이 강 보라. (이애의 집에 가 보아라.)
ㄴ) 느네 오라방 어디 가지니? (너의 오라버니는 어디 가셨니?)
ㄷ) 가네 누님 씨집간다. (그애의 누님은 시집간다.)
ㄹ) 자네 집이 가카? (저애의 집에 갈까?)

위 예의 “야네 집” “느네 집” “가네 집” “자네 집”의 排列을 文章成分으로 分析하면 ㄱ)~ㄴ)이 모두 N類語(Noun class Word) (一人稱單數를 除外한 人稱代名詞·人名·職名類를 呼稱키로 함)를 先行語로 하고 N類語(Noun class Word)(名詞·代名詞·數詞類를 呼稱키로 함)¹⁾를 後行語로 하여 {-ne}가 連結된 構造로서 主語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特徵은 體言間의 統辭關係에서 {-ne}는 連結된 形式이다. 이와 같은 構造는 屬格形의 獨特한 性格이므로²⁾ {-ne}는 屬格 {-üi}와 置換이 可能하고, 그 構造도 ‘N’類語+屬格 {üi/ne}+N類語로서 文法的 意味가 一致하여 同一한 形態類語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即 共通語로 對譯한 例示와 같이 “야네 집” “야의 집” “이애의 집”은 같은 文脈的 意味로서, 文中에 있어서 文法的으로 運用되는 {-ne}의 特徵的인 意味機能이 屬格 {-ui}와 一致하는 것이다.

한편 主格 {-i}, {-ka}나 造格 {-ro}, {-üro} 對格 {-üi} 등의 格은 敘述用言과 支配의 關係에 놓이는데 反하여 {-üi}는 屬格 {-ne}와 마찬가지로 結合關係에서 어떠한 支配의 規制가 없이 隨意的인 關係를 維持한다.

이르며 {-üi}와 {-ne}는 同一한 連結形式으로 歸着하는 것이나 그 成分에 있어서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即 {-ne}에 先行하는 “N’類語와” 屬格 {-üi}에 先行하는 “N類語”와는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前者는 {-ne/-üi}에 後行하는 “N類語”에서 이른 바 人稱代名詞가 除外되는 統辭的 構成과는 對立的인 結合關係를 갖는다.

即 앞에서 들었던 例의 ㄱ, ㄴ, ㄷ, ㄹ, 에서처럼 “야+{-ne}+집,” “가+{-ne}+집” “자+{-ne}+집,” “느+{-ne}+집”에서와 같이 {-ne}는 二人稱代名詞와 三人稱代名詞에 後行하고 있으며, 개똥이, 갑순이, 삼춘, 캔당等 人名·職名·親族名은 前記 人稱代名詞(가, 자, 느)로 代置가 可能한 것이다,

㉠ $\left. \begin{array}{l} \text{느} \\ \text{가} \\ \text{자} \\ \text{야} \end{array} \right\} + \{-ne\} + \text{집이 가 보라.}$

㉡ $\left. \begin{array}{l} \text{아} \text{ 방} \\ \text{개똥이} \\ \text{삼춘} \\ \text{현당} \\ \text{洞長} \end{array} \right\} + \{-ne\} + \text{집이 가 보라.}$

따라서 ㉠과 ㉡에서 {-ne}가 {-üi}로 代置될 수 있는 N類語에는 人名·職名과 人倫關係의 名詞가 追加되는 것이다. 한편 {-üi}와 {-ne}와의 代置가 不可能한 構成形式의 N類語는 다음과 같이 露出된다.

1) 김석득, “국어형태론”(延世論叢第四輯, 1966) pp.5~9.

2) 李承旭,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研究, 서울, 一潮閣, 1973, pp.63~66.

崔鉉培, 우리말본, 서울, 正音社, 1937 pp.842~844.

- ㄱ) 나의 책을 가지고 가서 보아라.
- ㄴ) 우리의 所願이 무엇인가 말하자.
- ㄷ) 말(馬)의 힘이 소의 힘만 못하다.
- ㄹ) 나라의 힘이 굳세다.
- ㅁ) 집의 소식을 전하자.
- ㅂ) 돌의 갑질은 넷이다.

위는 共通語의 發話形式이다. 그런데 例의 各項에서의 屬格 {-üi}가 方言形의 屬格 {-ne}로 代置하여 “나네 책” “우리네 所願” “말네 힘” “나라네 힘” “집네 소식” “돌네 갑질” 등과 같은 體言間的 統辭形式으로 結合될 수는 없고 {-ne}는 이 發話의 形式에서 排除되는 것인데, 이것은 音聲的 條件에서가 아니라 形態的 條件에서 基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ne}가 屬格形式에서 脫落한 構造는 屬格 省略形으로 交替하여 {-üi} 屬格形과 共存(나책, 나의 책)하는 것이다.

그리고 前述한 例에서 {-ne}에 先行한 N'類語 <야>, <느>, <가>, <자>는 “느집” “야 집” “가집” “자집”과 같은 屬格 {-ne}의 省略은 言述에서 찾을 수 없고 “자네 집” “자이 집” 形式만이 並用되며, 이 以外에 先行이 許容되는 前記의 N類語도 “삼촌네 집” “삼촌 집”이 並用하나, “삼촌의 집”과 같이 N'類語 + {-üi} + N 類語의 發話形式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陸地語의 影響인 듯하다. 이상의 例示에서와 같이 屬格 {-üi}는 方言形 屬格 {-ne}와 同一한 統辭的 機能과 文法的 意味로서의 置換이 可能한 統辭構成이 있는 한편, {-üi}와 {-ne}와는 置換이 不可能한 構成의 兩面을 具有하고있는 것이다. 前者는 三人稱代名詞(가, 야, 자)가 이에 該當하고, 後者는 一人稱과 <가><야><자>를 除外한 人稱代名詞가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置換의 原理는 이와 같이 規制性을 自明케 해주고 있다. 이리하여 {-ne}가 屬格 機能으로서 統辭的 構成에서의 特徵은 共通語에서의 {-üi}와는 性格을 달리하는 介在關係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同一機能의 方言形이라고 하기 보다 多樣한 機能 가운데 一面만의 負擔임을 確然케 하는 것이다.

1.3 屬格의 機能을 一面的인 것으로 하는 {-ne}는 發話形式에 따라서는 共通語에서 複數의 表示인 {-ne}와 同一한 機能으로 나타나며, {-tül}과도 文法的 意味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ne}는 {-tül}로 置換되며, “자네 -저애들” “기네 -그애들” “야네 -이애들” “느네 -너희”로 認識하는 것이다. 그러나 {-tül}과는 統辭的 構成에서 結合的 要件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置換이나 擴大는 隨意的인 아닌 것이다. 卽 {-tül}이 “책상들, 마소들, 여물들, 모양들”과 같은 結合의 環境에서는 “책상네, 마소네, 여물네, 모양네”에서 처럼 {-ne}로 置換된 構成으로서 言述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는 {-tül}과 {-ne}가 같은 複數를 表示하는 機能 이면서도 先行하는 N類語의 成分이 相異하다. 前項에서 敘述한 바 있는 屬格 {-ne}가 先行

하는 N類語에 規制가 있는 것처럼 同一한 形態의 {-ne}가 複數의 機能으로 言述되어지는 場面에서도 先行의 N類語는 人稱代名詞에 局限되고 있으니, 비록 機能은 달라지더라도 統辭的 結合要件은 같은 言語形式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卽 例의 二人稱代名詞 “느+ne”와 三人稱代名詞 “야/가/자+ne,” 不定第三稱 “누게+ne,” 共通格稱의 人代名詞 “성(兄)+네, 지(自己)+네”의 構成은 屬格形式과 複數表示의 形式이 一致하고, {-tül}은 第一人稱을 除外한 代名詞·名詞 等에 結合함은 勿論이고 用言, 副詞에 連結할 수 있는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ne}는 統辭적으로 負荷되는 機能은 同一하면서 結合의 領域을 人稱代名詞에 限定하고 있어서 {-tül}과 {-ne}는 構成形式에서 懸殊한 差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ne}는 統辭的 排列에서 一定한 語類를 先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ne}와 {-tül}은 叙述한 바처럼 같은 文法의 意味와 統辭的 機能를 가지고 있어서 同一形態類語로 묶을 수 있는 複數接尾辭인 것이다. 한편 形態적으로 同一한 屬格 {-ne}와 複數接尾辭는 다른 要素로 똑 같이 擴大가 不可能한 統辭的 排列의 順位를 가지는 것이다. 곧 屬格은 前述한 대로 體言問의 統辭的 關係인 “N類語+{-ne}+N類語”에 “V類語”(叙述語)가 後續되는 것이 一般的인 統辭形式이다. 그러나 複數로서의 {-ne}의 擴大는 N類語의 後續에 代贊하여 {-ne}+格+V類語의 形式이 可能하다. 이와 같이 {-ne}는 屬格의 機能과 複數의 意味로서의 對立을 이루고 또한 다른 要素로 擴大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同一形態類語로 묶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語彙論的인 同音異義語에 該當하는 것으로 規定지을 수 있는 한편 複數表示의 {-ne}와 {-tül}은 叙上한 바와같이 置換이 部分的이나마 可能하며, 그 構造的 意味가 同一한 데서 {-tül}接尾辭의 異形態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1.4 이상에서 {-ne}形態는 屬格의 機能으로 {-üi}와 置換이 이루어지고, 複數의 {-tül}과 는 置換과 擴大가 可能함을 살펴온 것이다. 統辭的 構成이 同一했을 경우, 言述의 形式에서 發話者의 意圖가 聽者의 理解에 混亂을 惹起한 場面이 있음을 나타낸다. 卽 {-ne}가 {-tül}로서의 意味, 統辭的 機能과 屬格 {-üi}의 機能的 特徵도 共有하고 있어서, 外的인 形態論的 形式만으로는 그 意味內容을 規定하기에 混亂을 招來케 하는 例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發話形式에서 顯著함을 볼 수 있다.

느네 집이 가라게

- ㉠ nū+nečipi+ karake
- ㉡ nūne+čipi+ karake
- ㉢ nūnečipi+ karake
- ㉣ nū+nečipi karake ↘
- ㉤ nūne+čipi karake →
- ㉥ nūnečipi + karake ↘→

위의 發話에서 形態素들의 境界가 同一한 경우 話者의 心理的 狀態에 따라 [+]가 놓이는 位置가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分節形態素³⁾가 가지는 辭書的인 意味 以外로 語順, 語調等으로써 發話의 內容面에 多樣性을 띄게 되고 文法的인 意味가 相異함을 보이는 것이다. 即 ㉑의 “nūne”는 /nū/에 [+]連接을 두어 {-ne}를 “人稱代名詞+屬格”(나의)으로 配列된 語順이 되고, ㉒의 {-ne}는 “nū-”가 閉鎖連接이므로 複數表示의 接尾辭{-tūl}과 置換이 가능하며, {-ne}에 [+]連接이 주어진 內容이다. 그리고 ㉓의 {-ne}는 [+]가 들어있지 않고 閉鎖連接으로서 屬格 {-ūi}와 置換이 가능하다. <nūnečipi karake: nūijčipi karake> 나머지 ㉑, ㉒, ㉓은 發話의 語末에 加勢되는 節終結形態素에 依하여 叙法의 變動을⁴⁾ 나타내는 것이다. [↓]은 現代國語에서 分節形態素 {-ta}, {-kka} 등에 配合하여 斷定的인 意味를 나타내고, [↘]는 肯定, 否定의 答을 요구하게 되는 疑問을 나타낸다. 또한 [→]은 亦是 文末에 配合되 自身の 發話에 對한 懷疑 等を 품은 態로 다음 말마디에 이어감을 나타낸다. 方言에서도 語末에 節終結形態素의 配合은 上, 下降調는 疑問, 平板調는 請誘의 뜻을 나타내고, 上昇調는 感嘆과 疑問, 그리고 請誘의 뜻을 나타낸다. 이것은 ㉑, ㉒, ㉓의 文末語尾 /-게/가 本來 強請이나 催促의 意味를 가진 語尾形態이므로 統辭的으로는 請誘文이 주된 機能인데도 疑問, 感嘆으로 構成이 바뀌고 따라서 發話의 內容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音의 相對的인 높이의 變化나, 音의 移行方式과 같은 非分割形態素로 말미암아 文法的 意味가 多樣하게 되어 이로써 表面的인 形態에서 오는 辭書的 意味의 混同이나 曖昧性은 克服되는 것이다. 前例 ㉑, ㉒, ㉓에서의 {-ne}는 그 環境이 모두 {N'+-ne+N} 成分으로 構成되어, 言述이 주어진 形態論의 形式은 同一하므로 語彙項目에 內在된 意味도 同一한 것 같으나 오히려 對立的인 現象을 빚고 있는 것이다. 即 ㉑의 {-ne}는 人稱代名詞(나의) ㉒의 {-ne}는 複數接尾辭, ㉓의 {-ne}는 屬格으로서 相異한 機能으로 갈리어, 構造의 意味는 ㉑ 너는 네 집에 가봐라 ㉒ 너희를 집에 가라 ㉓ 너의 집에 가라, 와 같이 달리 分化하고 있다. 分化의 契機는 前述한 바 開放連接, 閉鎖連接이나에 있는 것이다. 以上の 敘述을 통해서 {-ne}의 素性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이 規範化할 수 있게 된다.

{-ne}에 開放連接이 놓일 때 複數接尾辭가, {-ne}에 閉鎖連接이 놓일 때에 屬格接尾辭가 된다.

그리고 {-ne}의 先行音節에 開放連接이 놓이면, 人稱代名詞의 屬格形式으로 現代語에서 常用되는 {내<나+1, 너+의>} 또는 {내<나+1, 나+의>}와 等值關係의 意味와 成分으로 規定될 性質인 것이다. 이로써 앞에 例示한 ㉑, ㉒, ㉓의 發話形式에서 {-ne}의 統辭的 機能의 對立關係를 確然케 한 것이다.

3) 朴昌海, “국어 구조론 연구(3)” (延世大學校八十周年紀念論文集 人文科學篇, 1965) p.182

4) 許 雄, 言語學概說, 서울, 正音社, 1963, pp.200~203.

朴昌海, op.cit., p.186

許 雄, 國語音韻學, 서울, 正音社, 1965, p.112, p.413.

II

2.1 앞에서 살핀 共時的인 記述을 基底로 하여 {-ne}가 가지고 있는 屬格의 機能과 複數의 表示와 어떻게 形成되었으며, 그 發達의 經路를 어떻게 把握해야 하느냐의 史的인 側面에서 敘述을 試圖하려는 것이 本項의 主된 內容이 되겠다.

이로써 共時的 記述에서 {-ne}의 兩立하는 機能의 關聯性和 그 變遷에 對한 疑問을 解決코자 한다.

2.2 接尾辭 {-ne}는 共通語에서도 複數의 內容이어서 本島方言의 獨自의 性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屬格의 기능을,亦是 同一形態인 {-ne}으로써 負擔케 하는 發話形式에서 그 資質의 特殊性이 賦與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李崇寧博士는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에서 “...이 “네”가 複數의 表示나 아니냐는 姑捨 하고 이것이 人稱代名詞의 所有格의 機能을 함을 指摘하여 든다”라고 하고, 그러나 “네”의 使用이 유달리 눈에 띄이는데...所有格이 主인 듯하다”⁵⁾ 하여, {-ne}의 特性은 屬格의 機能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알려져 있는 資料에서 唯一한 方言形이고, 文獻語에서도 類似한 用例가 稀少한 데서, 重要視 되어야 할 屬格의 機能에 對한 作業이 先行되어야 하겠으나, 兩機能이 同一形態로 表示할 수 있음을 考慮하여 前述한 바 그 特色을 찾는데 意義를 두고 複數表示의 {-ne}에서부터 살피기로 한다.

우선 文獻語에서 用例를 다음에 든다.

各各 어머님내 뉘슴고 누의님내 더부어, <月印釋譜=6>

나그내넌 이물을 풀고져 흥느니 (客人們稱這馬...) <老乞大諺解上 62>

아자바님내의 다 安否 흥슴고 <釋譜詳節六2>

너느 夫人넌 아들 네히 <月印釋譜=6>

아기넌를 흥저만 마르치지 아니 흥시고 <閑中錄 pp.102>

이보오 벗님넌야 흥드지나 마르되야 <靑丘永言 pp.80>

위에서 “내” “넌”와 같이 表記의 混亂이 보이나 方言形 {-ne}와는 “어머님내~어멍네 (어머니네), 나그내넌~나그내네, 아자바님내의~아자바님네신디, 아기넌를~야베를”과 같이 置換이 可能하다. 이것은 文獻語에서 先行한 N類語가 人稱代名詞로서, 方言形 {-ne}의 還境과 同一하고 後行하는 成分이 格이라는 同一條件에서 置換이 可能한 것이다. 아울러 “N類語 + {-ne} + 格” 또는 “N類語 + {-ne}”에 後行하는 成分도 “V類語”이어서 統辭的인 構成形式이 前述한 것처럼 方言의 그것과 一致하다. 따라서 文法的 意味도 同一한 것으로서 文獻語의 {-내}—(-넌)는 方言形의 {-ne}와 對應關係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中世國語의 語形이 /ai/→

5)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國語學論叢, 서울, 東洋出版社, 1960) pp.298~299.

/ai/의 交替단을 거쳐 維持된 固有語라는 것을 容易하게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中世國語의 文獻表記에서 溯及할 수 있는 語形으로도 許多한 用例를 提示할 수 있는데, 우선 方言形의 “야네” “자네” “가네”의 形態와 意味上으로 近似한 例를 史讀文에서 들기로 한다.

萬一存撫不多逃亡爲去等矣徒當推教世 <紹修書院騰錄8>

矣徒等皆有年老偏母爲白乎矣他無顯見之人 <濟陽狀啓 丁丑四月>

矣徒段全羅道長城地白巖寺乙祖上文貞公教 是 <宣德七年監務官 傳書>

에서와 같이 “矣徒” “矣徒等” “矣徒段”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各各 “矣” “徒”의 用法에서 “矣”는

「臣矣諸將所捕倭船乙至於身矣奪取」 <壬辰狀草7>

「前矣加造船財格軍親按整理次以姑還本道」 <壬辰狀草52>

「其罪可殺是乎矣亦自本國滅死處置」 <濟陽狀啓>

「矣身若不直達則人無有知者矣」 <己丑錄>

“臣矣” “前矣” “是乎矣” “矣身”으로 表記되고 그 機能은 所有格, 處格, 反順連結語尾⁶⁾ 그리고 自稱의 代名詞等으로서⁷⁾ 比較의 多樣한 用法의 分布를 文獻에 남기고 있는 것인데, 이는 通常의인 表記임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 “徒”의 用例에서⁸⁾

牢山郡本百濟徒山縣 <三國史記 卷三十六地理志>의 地名表記와

「矣徒：의내 <儒胥必知，典律通寶，古今釋林>」와는 語音의 一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戶長柳瓊左徒副戶長承律右徒例以分折爲於<淨兜寺石塔記>」

에 있어서는 N類語에 後接하여 複數를 나타내는 接尾辭로 “徒”는 表記한 것이다. 이리써 “矣徒”는 本島方言의 “야(人稱代名詞)+{-ne}(複數接尾辭)와 一致하는 構成인 것이다.

그리고 앞에 例로 든 “矣徒等”이나 “矣徒段”도 1項에서 詳述한 터이지마는 “야+{-ne}+들(덜)” “지(人稱代名詞：自己)+{-ne}+들(덜),” “야+{-ne}+단”과 同類의 成分으로 된 構成形式이며 그 文法的 意味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리써 本島方言에서의 {-ne}는 15世紀의 言語狀態를 그대로 維持하는 共通語의 {-ne}와 等值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서 위와 같이 李朝時代의 文獻을 土臺로 하고, 方言의 分布를 基底로 하는 讀法에 依하면, 資料의 零星한 11世紀~14世紀의 高麗語 完成期를 뛰어넘어 {-ne}는 9世紀의 新羅語에 나타나는 것이다.

6) 장지영, 장세경, 이두사전, 서울, 正音社 1976., p.289.

7)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民衆書館 1960, p.57.

8)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서울, 博文書館, 1942, p.493.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風謠)

위 鄉歌의 表記法에서 “矣徒”는 吏讀表記의 “矣徒” “矣徒等” “矣徒段”과는 同一字의 表記이므로 音·訓借의 方法이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表現되는 文法的인 意味도 同軌라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譯語體의 李朝文獻語에서 “어머님내”나 “아지바님내의”의 {-nai}와 鄉歌表記의 “徒”는 吏讀表記의 橋梁的인 구실을 通하여서 對應의 關係로 볼 때 方言形의 {-ne}도 鄉歌表記와 文獻語의 關係처럼 同一한 對應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이로써 新羅語의 表記인 “徒”는 複數接尾辭 {-ne}의 溯及形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以上 {-ne}와 “徒”의 有緣性的 資料로서 本島地名의 例도 補完의 可能性을 提示해 주고 있기에 들기로 한다. 卽 “耽羅” “一徒” “二徒” 등의 國名 部落名으로서

嶺山漢挈在州南一回頭無岳又云圓山……(濟州實錄·地理志·濟州牧)

高麗穆宗五年壬寅六月耽羅山開四孔赤水湧 <世宗實錄地理志>

九韓者一日本二中華三吳越四毛羅… <三國遺事卷一馬韓>

或稱步羅後魏書……涉羅爲百濟所并 <耽羅紀年>

여기 “羅”字의 表記는 「國號曰徐耶伐或云斯羅或云斯盧或云新羅」 <三國史記卷三十四地理一>의 “盧”와 同音借字로 <斯羅, 新羅 斯盧>가 모두 “서녁”(東土, 東方)⁹⁾의 義로 表記된 것이 라 할 때 “耽羅”의 “羅”는 {닉}의 音借로 想定된다. 그리고 「初有高乙那良乙那夫乙那兄弟三人分處其地名其所居曰徒」 <耽羅文獻集>, 「良乙那所居曰第一(史作都) 高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三姓占」 <耽羅文獻集>에서 “那, 徒”도 {ne, nai}의 借字로 記寫한 것이라는 蓋然性은 前述한 吏讀文獻의 “矣徒(의내)”에 依據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兩字가 한결같이 “닉”의 表記이나 그 語義에 있어서는 前者가 “地方” “部” “土” “方”의 意로 推定되는 반면에 後者인 “徒”는 字訓대로의 表記인 “衆” “輩” “部類” 등으로 볼 수 있겠다.

卽 “큰거네 집”(큰 아들이 살고있는 집) “셋거네 집”(둘째아들이 살고있는 집) “조근거네 집”(막내가 살고있는 집)의 {-ne}는 各各 한 集團의 所屬員의 總稱인 뜻이 內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地名 第一徒, 第二徒, 第三徒는 集團의 次序에 의한 造語이고, 이 次序에 따라 居所를 定했음으로 해서 地域名과 集團名의 融合된 固有語形으로 慣用되어 온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地名의 考察은, 本考의 主眼하는 바가 아니기에 이 以上の 展開는 後日의 課題이고 또한 連斷을 不許하는 터이기는 하나, 本島의 始祖神話의 地名에 記寫된 “羅”와 “徒”字는 同音異義의 用字에 屬하는 例中의 一形態로서 李朝文獻語의 “徒”{-nai}와 一致한 用法이고, 本島方言에서 言述하는 {-ne}에 溯及하는 借字라고 想定할 수 있겠다. 따라서 共通語 {-ne}의 起源的인 用法이기도 하다.

以上에서 敘述한 바와 같이 複數接尾辭{-ne}의 展望的인 考察은 稀少한 資料에서나마 古代

9) 上揭書, p.41.

國語에서 그 基層을 窺視할 수 있으리만큼 固有性을 지닌 基本語形임을 指摘케 하는 것이다.

2.3 {-ne} 複數接尾辭는 古代語의 維持形이라 보았다. 이것은 李朝語를 中心으로 한 叙述이라는 點에 앞으로의 補完은 不可缺한 것이다. 이 作業의 한 領域으로서 우선 다음의 語例를 提示하고 展開의 契機로 삼고자 한다.

중내 날爲^하야(僧等爲我) <上院寺勸善文>

아자마님내의 다 安否 ^하습고(問……父解飯王等) <釋譜詳節八, 2>

위 例에서 複合接尾辭 {-nai}는 “等”字로 記寫되어 있는데 前述한 “徒”字와는 並用된 것이다. 결국 {-nai}의 漢字表記로는 “徒”“等”의 兩字가 同値의 關係에 있으며, 이것은 字意의 同實性에 依據한 것임은 毋論이라 하겠다. 그런데 譯語體의 “等”, 吏讀文類의 “徒”의 表記에서 特別히 “等”字가

次知官員吏典及受職者等乙並只處死爲 <大明律直解, 二, 2>

各官浦諸將等乙馳援時所經海路…… <壬辰狀草>

年六十及癡疾人等乙良並只免緣座之罪爲齊 <大明律直解, 十八, 1>

[-들홀-들을]과 같이 “複數接尾辭+目的格”의 配列로 表記된 事實은

이 사람돌히 다 神足이 自在^하야(如是之等身神足自在) <釋譜詳節, 六, 18>

李朝初의 “돌”(等)과 同一한 手法에 依한 複數表記인 것이다. 따라서

於內人衣善陵等沙 <鄉歌 隨喜功德歌>의 “等沙”도 “들홀-들을”의 {-들}과 同軌라 想定되는 것이며, 本島方言의 “지네들사” “가네들사”의 構成形式과도 相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等”字는 複數接尾辭 “내” “너”로서 뿐만 아니라 “들-들”의 記寫까지도 하고 있어서, “내”와 더불어 “-들”은 文獻語 以前으로 相當히 遡及할 수 있는 形態임을 示唆하는 資料의 位置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等”字의 借用法에 對한 追求가 不可避하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文字言語의 活動이 우리와 類似한 背景을 가진 日本語의 文獻語에서 表記의 實際를 가지고 援用하는 것이, 形態와 音韻에서 {-ne}, {"等"}과의 有關性을 살피는데 尙與함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日本語의 上代語研究의 基本的인 資料로 삼는 文獻에서 複數接尾辭와 “等”字의 表記法을 살피기로 한다.

あま少女らが乗れる舟見ゆ <万葉集六>

みづみづしくめのこ良が <古事記>

我毛らは御筆はやしい <万葉集十六>

相見子等乎 後戀牟鴨 <万葉集十一>
(あひみしこらを)

吾目らはますみの鏡 <万葉集十一>

위 例는 7世紀 中半期 日本語의 記述로, 漢字 “等”은 {-ra}의 表記로 利用하고 있다. 그리

고 이 {-ra}¹⁰⁾形態는 <tačči>(タチ)와 置換이 可能하며 <domo>(トモ)와는 場面에 따라 部分的인 置換이 可能한 것이다. 이것은 “-tačči” “domo”가 共히 複數를 表示하는 接尾辭로서¹¹⁾ {-ra}와는 統辭的 排列과 文法的 機能을 같이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ne}와 {-tú}의 關係와 類似하다. 그리고 {-ra}와 結合할 수 있는 先行語는 主로 사람을 나타내는 N類語 또는 指示代名詞라야 하는 制約이 附加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ra}의 記寫는 叙上의 文獻을 上限으로 하여 現代語에서 古代語形을 維持하고 機能도 起源的인 狀態에서 變化的인 變化없이 나타나고 있다.

書等余牟人乃心者(ふみらよむひとのころは) <本居宜長: 玉鉾百首>

以上 文獻의 表記라 現代日本語에서는 {-ra}가 한결같이 複數를 表示하는 接尾辭로 使用되어지고 漢字로 記寫하는 데는 “等”字로써 代置하고 있어서 表記의 時代的인 混亂이나 曖昧性을 찾아 볼 수 없으리만큼 繼起的인 目錄을 確然하게 提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國語에 있어서, 古代語에 記寫된 漢字 “徒”가 中世語에서는 “徒” “等”字로 並用된 表記法에 이어, 現代語에서도 그대로 {-nai} {-ne} {-ne}의 漢字表記로는 “等”字가 使用되는 言語現實과 一致하는 것이다. 即 “等”字의 使用與否와 아울러 訓讀을 어떠한 形態로 發語化했느냐는 各各 前述한 바와 같이, 國語에서는 {-nai} {-ne}, 日語에서는 {-ra}로 實現되고, 이로써 兩語가 共히 古代에서의 複數接尾辭의 表示로 使用되어 機能의 一致를 的確히 示顯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nai}와 {-ra}는 字意에서 오기는 하나 文法的 意味가 同一 함은 形態의 類似性과 아울러 起源的인 語形成에서 어떤 親緣的인 關係가 想定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4 {-nai}와 {-ra}와의 두 形態는 音素配列에서 /n/, /r/를 語頭音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 兩音素의 特徵的인 資質을 들어보면 古代日語에서 “ラ行音”은 文節의 初頭音으로 오는 것을 忌避하고¹²⁾ <ラシ, ろする, る, うる, ろ>等 所謂 助動詞, 助詞等 付屬語에 限해서 /r/音이 올 수 있는 特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國語의 /n/音素는 語頭에서 /i/나 /j/앞에서만 올 수 없고, “ㄱ, ㅋ, ㆁ, ㄷ, ㅌ, ㄴ” 앞의 舌側音 /l/은 /n/로 變하여 語頭に 位置하는 特色이 있다.

러울(癩) <訓民正音, 用字例>

로새(騾) <月印釋譜, 廿一, 81>

라귀(驢) <釋譜詳節, 九, 15>

러피다(너피다, 廣) <禪宗永嘉集序7>

10) 松村明, 國語史概說, 日本東京, 秀英出版, 1972, p.67.

11) 大國語辭典, 日本, 東京

12) 松村明, op.cit., p.36.

위 例¹³⁾의 語頭에 表記된 /l/로써, 15世記에 語頭 /l/음이 發音되었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¹⁴⁾ 그리고 “나귀” <月印, 二一, 75> “닝우리” <訓蒙上 18> “노새” <訓蒙字會, 上:19> “너피” <釋譜詳節, 九, 29> 와 같이 同一語의 語頭音이 “ㄴ, ㄹ”으로 混用된 것은, 語源을 意識한 表記의 差異이기는 하지마는, /n/음이 音韻的 環境에 따라 /l/음에 代置하는 音聲的 資質의 通時性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눔” <杜詩諺解, 48 ; 1220> “아롬” <杜.重 18 : 20>”과 같은 音이 相通하는 現象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語中에서 初頭音 /l/도 連結條件에 따라서 /k.l/→/k.n/→/p.n/, /t.l/→/t.n/→/n.n/, /m.l/→/m.n/, /p.l/→/p.n/, /p.l/→/p.n/처럼 同化 作用이 일어나는데, 이는 現代國語에서 普遍的인 現象이다. 特히 本島方言에서 /l/ 末尾子音에 /l/初頭子音이 連結할 때는 先行하는 /l/은 變하지 않고 後行하는 /l/은 /n/로 實現되는 變動도 不少한 것으로

노래-놀래 : 놀내(노래 <歌 >)

빨래 : 빨내(洗濯)

오래 : 올래 : 올내(出入路)

오르다 : 올는다(登)

기르다 : 질누다(養)

는 共通語에서의 /l.n/→/l.l/ (솔나무-솔라무)의 同化作用과는 反對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國語의 /n/은 語中에서 /n/→/l/, /l/→/n/, 또는 /n/, /l/의 並用과 相通의 現象을 나타내며, 語頭에서는 日語의 /r/과 같이 忌避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n/, /l/의 音聲的 現象이 國語와 日語와의 語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例示하고 {-ne}와 {-ra}에 言及하기로 한다.

國 語	日本語
나물 : namul (菜)	na (菜)
마루 : maru, mnru (宗) (板間)	mure, mune (棟) (宗)
가루 : karu (粉)	kona, kuzu (屑) (粉)
노 : no (繩)	rawa, ran (繩)
우리 : uri (我)	ori (cage)
느리 : nurit (緩)	nuru (緩)
노루 : noru (獐)	noru

13) 李崇寧, 中世國語文法, 서울, 乙酉文化社, 1961, p.27.

14) 許 雄, op. cit., p.249.

골 : kol(洞)	kura(洞)
두루미 : turumi (鶴)	туру(鶴), curu(鶴)
무리 : mul(muri) (群)	mura(群)
여러 : yöró(衆)	yörö(萬)
벌리 : pöri(張)	paru(張)
오리 : ori(鴨)	ahiru(鴨)
이르 : nil(云)	nöru(告)

위의 예¹⁵⁾는 國語와 日語의 兩語間에서 語彙가 內包하고 있는 語意가 同一할 뿐만 아니라 形態的으로도 類似한 것이다. 即 音韻의 配列에 있어서 “/r/+母音”의 構成形式을 共有하고 있고, 先行, 後行音의 連結에서 積極的인 類似를 보이는 것이다. 特히 /l/, /r/은 語頭에서 發音되지 아니하는 音韻으로서 兩語間의 共通性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歷史的인 現象에 屬하고 있다. 그리고 語中에는 彈舌音으로서 調音方法을 같이하는 것이다.

例示한 形態素 가운데 “kol; kura” “mul (muri):mura” “nil (nirü):nöru” “pöri(palri):paru” 등은 “/l/=r/”의 關係로써 結合되어 있어, 國語의 /l/이 日語의 /r/로 實現됨을 보이고 있으므로 /l/은 결국 /l/⇌r/로 說明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l/은 또한 “mure, mune; maru (宗) “karu, koru; kona(粉)에서와 같이 日語에서 /r/, /n/의 交替가 나타나고 國語의 /r/가 日語에서 /n/로 確認되는 例도 있다. 더구나 本島 方言에서 “mulne(宗族, 親族), 울리(鴨)→올니, pari→pəlni(張)” 등의 語例와 같이 “/l/~l/”→“/l/~n/”로 實現됨은 이미 言及한 바 있는 /l~/n/과 一致하는 것이다.

以上の 敘述로써 보아 日語의 /r/는 國語의 /r/, /l/도 方言에서는 /n/로까지 交替가 自由로우며 國語의 /r/은 또한 日語의 /n/로도 示顯되어 國語에서의 /l/→n/과 매우 類似한 變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標題의 {-ne} {-ra}는 機能에서 類似할 뿐만 아니라 音韻的 構造에 있어서도 初頭音 /n/과 /r/가 偶然的인 一致가 아니라는 蓋然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하겠다.

/n/, /r/의 初頭子音이 類似할 뿐 아니라 母音에 있어서 兩語間의 一致가 앞에 提示했던 “turumi, turu” “mul, mura” “namul, na” 등에서 指摘되는 것이지만은 다음에서는 더욱 이 關係를 確固히 해 주고 있다.

pat(田)	pata(畑)
nat(鎌)	nata(鉞)
kat(帽)	kasa(笠)

15) 宋 敏, 韓日兩國語의 比較研究史.(論文集 第一輯, 聖心女子大學, 1969) pp.67~89.

과 같은 몇 쌍이 對應되는 形態에서¹⁶⁾ 母音/a/를 共有하고, 그 連結條件이 兩語間에 一致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느 言語에 있어서도 音韻體系가 認定되는 것이고, 發音習慣의 變遷도 體系的으로 일어나는 言語事實에 準據할 때 國語의 {-na}는 日語의 {-ra}와 一致될 것으로 推定되며, 國語의 /ai/는

tɛ(tai)(竹)	take(竹)
nɛ(nai)(川)	nare(河)
pɛ(pai)(腹)	hara(腹)
kɛul(kaiul)(개울)	kapa(河)

예에서와 같이 日語의 /a/母音과 對應의 關係에서 說明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國語의 /ɛ/는 李朝의 文獻語에서 “내” “니”로 表記한 事實로 보아/a+/i/, /v+/i/의 發音內容이라 할 것이므로 이 文獻語를 中心으로 하는 限 /a/와 /ai/의 一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日語의 /a/母音과 對應하는 國語의 /ɛ/는 /ai/→/ɛ/~e/의 發達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살펴온 初頭音 /n/~r/과 母音 /ai/~a/의 對應에 鼓舞的인 言語資料로서¹⁷⁾

土耳其語	-lar (-lor)
通古斯語	-sal, -hal, -ul, -il
滿洲語	-sa -ta, -te, -ri
蒙古語	-nar, -ut, -od, -s

altai語族의 複數接尾辭는 偶然的 一致 以上の 親緣的인 關係를 提示하여 주고 있다. 위에서 特히 土耳其語의 “-lar, -lor” 滿洲語의 “-ri” 蒙古語의 “-nar” 등의 形態에 있어서 初頭音 /l/ /r/, /n/는 國語의 {-nai}, {-ne}, 日語의 {-ra} 複數接尾辭의 初頭音 /l/ /n/의 相互關係와 너무나도 恰似하다. 그리고 母音에 있어서 /l+/a/, /n+/a/는 /r+/a/와 “/n+/al+/i/와도 類似的인 結合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보아 土, 通, 蒙, 滿語의 複數接尾辭와의 起源的인 語形의 比較는 課題를 달리하여 考究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 國語의 複數接尾辭 {-ne}와 日語의 {-ra}와는 同一한 根源에서 發達한 語形이라는 推定이 文獻語의 時代的 空白을 補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以上 살펴온 바 國語의 初頭子音 /n/는 日語의 /r/와 對應을 이루고 國語의 /n/, /l/는 相通한다. 그리고 母音 /a/는 國語의 /ai/, /ɛ/에 對應하므로 複數接尾辭 {nai} {-ne}는 日語의 {-ra}와 偶然的인 一致가 아니라 同一한 起源이라 推定하는 것이며 本島方言의 {-ne}는 {-nai}의 發達形 <nai→nɛ→ne>이라 하겠다.

16) 服部四郎, 日語の系統, 日本東京, 岩波書店, 1963, p.45.

17) 松村七郎, 大林太良, 日語の起源, 日本東京, 弘文堂, 1973, p.89.

III

3.1 前項에서 複數接尾辭로서의 {-ne}는 {-nai}의 發達形이며 日本語의 {-ra}와 親緣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指摘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項에서는 {-ra}가 屬格을 表示함은 어떠한 通時的인 要因이 介在하였기에 同一한 形態가 二重의 機能을 負擔하는가를 叙述하려 한다.

屬格 {-ne}는 I項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二, 三人稱代名詞·人名·職名·等の N'類語를 義務的으로 先行語로 하고, 場面에 따라서는 N類語를 後行語로 하는 統辭的 排列이 複數接尾辭 {-ne}와 一致하다. 即 屬格, 複數表示의 兩機能으로 分立되어 있으면서 統辭論的 構成에서 成分을 共有하는 性格으로 미루어 起源的으로 二重機能이라고 하기에는 疑心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本島方言에 唯一하게 言述되어지는 獨自의인 機能이 文獻語에서 表示되는 屬格形式에서 어떤 變遷의 痕跡을 採取할 수 있지 않은가 하여 周知의 例나마 다음에 들어 그 趣移를 살피기로 한다.

耆郎矣兒史是史蔽耶 <讚善婆郎歌>

於內人衣善陵等沙 <隨喜功德歌>

蓬次叱苞中 <紫竹旨郎歌>

官矣不公不法等乙 <大明律直解一, 9>

鄉札, 吏讀의 表記體에서는 <矣, 衣, 叱>로써 屬格을 表示하였고,

官吏의 다시언마로 <龍歌117>

아기아돌이 각시툼 <月印千江之曲148>

東海ハ 마시 (東海之濱) <龍歌28>

15世紀 文獻語에서는 {-üi/vi/-s}이 나타나는 歷史的 表記를 通하여 볼 때 本島方言의 屬格 {-ne}와 形態的으로 類似形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上記의 屬格 {-s}을 起源的으로 {-n}에서 發達한 것으로 보려는 說이 있고¹⁸⁾ 더구나 다음의 吏讀表記體에서는

矣身門臨亂忘身之狀乙據此可知是白齊 <光海 朴東亮招>

矣身若不直達則人無有知者矣 <己丑錄>

矣身(내몸, 내)의 用例로써 屬格의 發達을 “~nai~(nüi)→-ai~üi→üi”로 推想하여¹⁹⁾ 本島方言의 屬格 {-ne}의 機能과의 接近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矣身”의 “矣”가 屬格으로서의 /n/脫落形이라기보다 自稱의 代名詞 {의}, {너(矣徒)}의 觀點에서 더욱 類似形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即 共通語에서 “이녀”(당신)이 本島方言에서는 “자기” “당신” “내”의 文脈的 意味로 實現되는 것이다.

18) G.J. Ramstedt, A Korean Grammar, Helginbi, 1930, p.41.

19) 李崇寧, 音韻論研究, 서울, 民衆書館, 1955, p.274.

” , 國語學論叢, 서울, 東洋出版社, 1960, p.299.

이녀 집이나 허연 (자기 집이나 마련하였는가)

이녀신디 ㄹ라꼬 (너에게 말한 줄 아니)

난 이녀냥으로 흥젠 (난 나대로 하겠오)

이녀네사 가 (당시들이야 가겠나)

“이녀” “이녀네”와 “矣” “矣徒”의 統辭論的 關係는 人稱代名詞 “너” “지” “가” “야” “자”等과 同一한 領域에서 考察되어야 할 것이고, 위 例에서 “矣身”은 “이녀몸”으로 置換이 可能한 것이므로 亦是 統辭的 成分은 自稱代名詞로 歸屬된다고 하겠다. 이로써 屬格 {-ne}가 起源的인 屬格形 *n까지 週及할 수 있는지는 疑心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다음의 用例에서 {-ne}의 機能上의 變遷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느 夫人넛 아돌 네히<月印釋譜二4>

넛 聖人넛 보라물 보며<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20>

위 例에서 “넛”이 配合하는 環境은 “複數接尾辭 {-nai(내)}+所有格 {-s(∧)}+N類語”의 統辭論的 構成으로 分析되고 “N類語”를 先,後行語로하는 體言間의 統辭關係에 있다. 이 形式에서 所有格 “S”가 脫落한 경우의 構成은 I項에서 叙述한 “N類語+{-ne}+N類語”와 一致하는 것이며, {-ne}가 屬格이나 複數 表示나 統辭關係의 模糊性은 連接에 依하여 그 機能을 識別할 수 있다고 한 I項 3에서 叙述한 바와 一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은 緊密 連接으로의 移行을 뜻하는 것이며, 實際 言述에 있어서 連接의 繼起는 “s”所有格의 連結與否에 關係없이 文脈的인 意味는 識別이 可能하였고, 이러한 發話現象의 殘影이 本島方言에서 的 複數接尾辭 {-ne}가 二重의 機能을 負擔하게 된 起源이라 할 것이다. 곧 “複數接尾辭 {-ne}+所有格 {-s}”의 構成에서 {-s}脫落形이 屬格 {-ne}인 것이다.

3.2 以上 I, II, III에서 叙述한 바를 다음에 要約하여 結尾로 삼고자 한다.

1) 共通語의 屬格 {-üi}와 複數接尾辭 {-tül}이 本島方言에서는 {-ne}로 置換되어 言述되는데, 統辭論的 構成과 文法的 意味에서 差異를 나타낸다. 即 共通語의 屬格 {-üi}는 N類語를 先行語로 하고, 單純히 所屬이나 所有의 意味로만 表現하는 것이 아니라 構成에 따라서는 關係, 所産, 所在 等を 包括할 수 있는 文法的 意味를 表示하는 것이다. 그런데 本島方言의 {-ne}는 N類語를 先行語로 하고 있으며 또한 N類語에 對한 關係와 所屬, 그리고 所産에만 局限한 屬格機能의 表示로 使用하는 것이다.

2) 複數接尾辭 {-tül}은 N類語를 先行語로 하며, 活用語尾에도 連結할 수 있고 또한 副詞形이나 副詞에도 結合하는 構成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本島方言의 {-ne}는 N類語를 先行語로 하고 副詞나 活用語尾에 連結되지는 않는다.

3) {-ne}가 體言間의 統辭關係에서 複數의 表示로 言述될 場面에서는 緊密連接으로 부터 + 連接으로 바뀐다.

4) 이와 같은 {-ne}의 歷史的 表記로서는 鄉札과 吏讀에서 複數接尾辭로 “徒”가 記寫되었으며, 李朝의 文獻語에서는 {-닉}, {-네}로 나타나는데 漢譯字로 “等”字가 보인다.

中世國語의 譯語體에서 表記된 “等”(내, 닉)字는 古代日本語의 資料에서도 亦是 “等”字가 複數接尾辭의 表示로 頻頻하게 나타나며, 讀法은 {-ra}로 誦讀하였다. 그러므로 國語의 {-nai}와 日本語의 {-ra}와는 同一한 機能의 表示로 同一字를 使用한 것이어서 形態나 文法的 意味에서 對應關係를 이루고 있으며 더구나 Aitai語系의 複數接尾辭의도 類似한 것이다. 이로써 國語의 {-nai}, {-ne}와 日本語의 {-ra}와는 起源을 같이 하는 親緣的인 關係에 있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그리고 屬格 {-ne}는 複數接尾辭에 連結한 屬格의 表示인 {-s} 脫落形이 그 起源이라 推定하는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the Genitive Case {-ne}

Kang Keun-bo

I.

The genitive case of Korean language is expressed with {-ŷi} and plural is expressed with {-tŷi}. Meanwhile, in the dialect of Jeju Island, above both functions are substituted with {-ne}.

In case {-ne} is genitive case, it is composed of "Noun Class Word + {-ne} + Noun Class Word" and if it is the usage of plural suffix, it is composed of "Noun Class Word + {-ne} + Pronoun Class Word". And the structure is composed with genitive case and expressed with genitive case in contextual meaning, sometimes it is expressed with plural suffix, but each of them is discriminated by junction. In other words, if it is +junction, it means plural, -junction it means the function of genitive case.

II.

Plural suffix {-ne} is given expression to {-nai} not only a Chinese character writing of old Korean Language but also Korean language of 15 century.

{-nai} corresponds to plural suffix {-ra} which has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in Japanese language (te -take, ne-nare, pe-hara, keul-kapa) and it is similar to plural suffix; Turkish -lar, (-lor)

Jungus -sal,-hal,-ul,-il

Manchu -sa,ta,-te,-ri

Mongolian -nar,-ut,-cd,-s,etc.

Consequently {-ne} can be mentioned suffix of an identical function which is equivalent to origin of Japanese {-ra}. And genitive case {-ne} is emission form of {-s} from plural suffix {-ne} + possessive case {-s}.